산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7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10월 19일 (음력 8월 28일) 목요일

광주 사교육비 전국서 세번째

月평균 37만3천원…서울·부산 뒤이어

전남은 25만3천원

광주지역 초·중·고교생들은 학기 중 1인당 월 평균 37만3천원을, 전남지역 학생은 25만3천원을 각각 과외나 학원수강료 등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사교육비는 태풍피해로 조사에서 제외된 강원을 뺀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난 7~9월 광주 915명, 전남 275명 등 전국 초·중·고교생 2만2천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학기 중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개인 및 그룹지도, 학원수강만 포함됐고, 초등생에게 많은 학습지나 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이나 EBS 등 IT·매스컴 사교육은 제외돼 실제 사교육비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9만원, 광주 37만3천원, 대전 35만3천원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비가 가장 적은 곳은 전북으로 24만1천원이었다. 전남은 25만3천원으로 인천(24만6천원)에 이어 세번째로 적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분포는 10만~30만원이 49.4%로 가장 많았고, 31만~50만원 29.5%, 51만~80만원 12.1%, 81만~100만원 4.7%, 101만~150만원 2.6%, 151만원 이상 1.7% 등이었다.

■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만원)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전체
서울	18.5	19.7	17.6	12.5	8.1	15.3	43.9
부산	15.9	15.5	18.8	6.6	6.4	15.4	39.0
광주	**18.4**	**22.3**	**23.0**	**18.8**	**19.4**	**33.8**	**37.3**
대전	12.7	17.9	20.0	10.7	14.4	15.4	35.3
경기	10.5	15.3	14.9	8.7	6.6	13.1	34.3
대구	10.2	14.6	16.2	9.3	6.9	24.3	33.1
경남	9.8	13.0	14.7	10.1	5.7	10.1	31.1
제주	10.8	14.7	14.7	8.5	4.0	7.3	29.7
경북	13.6	12.6	10.6	5.6	5.3	15.2	28.1
충남	8.2	11.8	11.0	4.9	4.9	15.4	27.8
울산	21.3	11.5	7.9	5.4	4.7	9.3	27.8
충북	7.3	11.6	10.6	3.9	3.2	9.3	25.9
전남	**3.4**	**12.3**	**13.1**	**4.7**	**3.3**	**33.3**	**25.3**
인천	6.8	9.5	8.6	5.6	4.8	9.7	24.6
전북	7.5	11.1	10.3	6.9	4.1	10.3	24.1

※ 강원은 태풍 피해로 조사에서 제외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주지역 학생의 경우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가 55.9%로 가장 많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13.3%, '부모가 하라고 해서' 12%, '학교는 나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10.5% 등이었다. 전남 학생도 엇비슷했다.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지역 학생의 경우 '그렇다'33.9% '매우 그렇다' 6.2% 등 40.1%, 전남도 40.6%에 그쳤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정치 프리즘

北核사태 후 정계개편 '핵'으로

'햇볕' 수호세력 뭉쳐라

북한의 핵 실험 국면에 등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앞둔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 정치 현안에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김 전 대통령이 입을 열면서 여권 재편의 동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 등 대선 정국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과의) 분당에 여당의 비극이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범여권 재편의 방향을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분당 원죄론'을 거론한 것은 민주세력 대통합을 통한 전통적 지지층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호남 민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분명한 여권 통합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 실험 사태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포용정책 유지'는 한나라당의 '대북 강경 제재' 방침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범 여권 새판짜기'에 정체성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은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수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오는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며 조만간 금강산도 방문, 햇볕정책을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는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김 전 대통령의 노선을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근본적 동질성을 확인시키며 민주·평화세력의 재결집으로 한반도 위기 극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한다는 여권 대통합의 원칙과 명분 등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통령이라는 돌출 변수에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분리 대응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호남 민심을 움직이게 됐고 이를 계기로 관망세를 보여왔던 호남 민심이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쥐면서 정계개편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북 핵실험 사태는 한나라당에는 보수 세력의 결집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으로 분열된 여권에는 민주·평화세력 통합이라는 명분을 쥐어줬으며 이는 김 전 대통령의 행보로 더욱 극명해졌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sykim@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개막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18일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막됐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잔치에는 남도 음식 1천200종이 전시된다. /위직량기자 jrwi@

"北, 中에 2차 핵실험 통보"

美언론 보도…정부 "확인 안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면서 곧 추가 실험이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갈수록 유력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미국 NBC방송은 17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일련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임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도 정보관리를 인용, 북한 고위 군부 간부들이 '여러차례의 실험(multiple tests)'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으며, "많으면 3곳"에서 핵실험 준비일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들을 미 첩보위성이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북한이 중국 측에 추가 핵실험 계획을 통보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그에 대해 통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가하기 위해 방한하는 19일이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2차 핵실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등이 나돌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이러스 통해 암세포만 파괴"

연대 의대팀 첫 개발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를 조작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새로운 유전자 암 치료법을 개발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 김주항·윤채옥 교수팀이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릴렉신(Relaxin)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고 릴렉신을 바이러스에 주입해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개발은 세계적인 암 연구 전무 잡지인 미국의 JNCI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18일(미국 현지시간)자에 실린다. /연합뉴스

재광주광양향우회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고향을 떠나 온 뒤 잠시나마 잊고 지내던 향우들과의 정감을 나눌 수 있는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서로 간에 교분과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오후 5시부터
■장 소 : 무등산 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
■연락처 : 011-603-9150(이돈제)
019-605-3298(전갑석)

재광주광양향우회 회장 허 재 호